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I. 머리말	1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① 지역별 동향	2
② 진입방식 및 업종별 동향	12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7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21
V. 시사점	23
※ 참고자료	25

작성 : 책임조사역 조윤경 (3779-6667)
ykjo@koreaexim.go.kr

확인 : 팀장 선우유민 (3779-6664)
eumin@koreaexim.go.kr

< 요약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①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분석

1. 개황

- '12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1조 3,910억 달러
 - '12년은 유럽 재정위기 및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핵심사업(Core business)에 집중하며 자산구조조정 및 투자회수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재조정한 것이 '12년 투자감소의 주된 원인
 - 선진국은 전년대비 23% 감소, 개발도상국은 중국, 멕시코 투자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 증가, 체제전환국은 러시아의 투자감소로 전년대비 24% 감소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선진국) '12년 전년대비 23% 감소한 9,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세계 유출액 감소를 주도
 - '10~'11년 선진국의 투자회복세를 주도하던 미국은 '12년 유출액이 유럽발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3,289억 달러 기록, 유럽의 '12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37% 감소하며 '07년의 29% 수준인 3,850억 달러를 기록
- (개도국) 중국, 멕시코 등의 투자증대로 전년대비 1% 증가한 4,261억 달러 기록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멕시코 등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개도국의 전세계 유출액 대비 비중이 31%에 달함
- (체제전환국) 러시아의 유출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4% 감소
 - 체제전환국 유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출액 감소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555억 달러 기록
- '12년 최다 투자유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순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 (선진국) 선진국 앞 유입액 감소분이 전세계 유입액 감소분의 86%를 차지
 - 미국, 벨기에 등 선진국 국가들이 전세계 유입액 감소를 주도하며 전년 대비 32% 감소한 5,607억 달러 기록
- ☐ (개도국) 전세계 유입액 대비 비중이 52%를 기록하며 최초로 선진국을 추월
 - 개도국의 '12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하는데 그친 7,02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개도국 중 아프리카는 전년대비 5% 증가한 500억 달러를 기록
- ☐ (체제전환국) 러시아, 벨라루스 앞 유입액 감소로 전년대비 9% 감소
 - 체제전환국 유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앞 유입액이 전년대비 7% 감소함에 따라, '12년 체제전환국 앞 유입액은 874억 달러 기록
- ☐ '12년 최다 투자유입국은 미국, 중국, 홍콩, 브라질 순

②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분석

1. 진입방식별 투자 개황

- ☐ 경기침체로 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모두 투자감소
 - 기업들이 성장보다 내실강화에 집중하며 '12년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대비 33% 감소한 6,122억 달러를, M&A 투자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3,081억 달러 기록

2. 진입방식별·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 ☐ (그린필드 유출) '12년 전체 그린필드 유출액 대비 선진국 비중은 66%
 - 선진국의 그린필드 유출액은 전년대비 37% 감소, 개도국은 전년대비 22% 감소, 체제전환국은 전년대비 44% 감소
- ☐ (M&A 유출) 전세계 M&A 유출액은 유럽발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45% 감소
 - 선진국 M&A 유출액은 '12년 전년대비 59% 감소한 반면, 개도국 M&A 유출액은 '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그린필드 유입) 전체 그린필드 유입액 중 개도국 유입액 비중이 57%

- '12년 개도국 그린필드 유입액이 전년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그린필드 유입액 대비 비중은 57%로 가장 높음

□ (M&A 유입) 전세계 M&A 유입액 대비 유럽 비중은 45%

- M&A 유입국은 주로 선진국이며, 유럽의 '12년 M&A 유입액은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지만 전세계 M&A 유입액 대비 비중은 45%에 달함

3. 진입방식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그린필드 업종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그린필드 유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 '12년 제조업 그린필드 유출액이 전년대비 42% 감소하며 전체 그린필드 유출액 대비 43%의 비중을 차지, 서비스업(53%)보다 낮은 비중 기록

□ (M&A 업종별) 1차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경기침체로 타격

- '12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서비스산업 M&A가 전년대비 39% 감소한 반면, 제조업 M&A 비중은 '11년 41%에서 '12년 47%로 상승

I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우리나라 '12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330억 달러 기록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중 우리나라 유출액 비중은 '11년 1.7%에서 '12년 2.4%로 상승, 유출액 국가순위는 '11년 16위에서 '12년 13위로 3단계 상승

□ 우리나라의 '12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99억 달러 기록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 우리나라 유입액 비중은 '11년 0.6%에서 '12년 0.7%로 상승, 유입액 국가순위는 '11년 36위에서 '12년 31위로 5단계 상승

□ 우리나라는 개도국 앞 투자비중이 전세계 대비 다소 높은 편

- 우리나라의 '12년 지역별 투자(유출) 비중은 선진국 41.6%, 개도국 57.1%, 체제전환국 1.3%로 전세계 대비 개도국 앞 투자비중이 5.1%p 높음

□ 우리나라 '12년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75%

- 우리나라는 '12년 그린필드형 투자 비율(75%)이 전세계 그린필드 투자 비율(67%)보다 높고, 업종별로는 1차산업 비중(31%)이 전세계 1차산업 비중(4%)보다 높음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2015년까지 해외직접투자는 완만히 증가할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3」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13년 1.45조 달러, '14년 1.6조 달러, '15년 1.8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 선진국은 사업서비스 분야, 개도국은 농업, 광업 등 유망

- 동 보고서는 선진국 앞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분야, 개도국은 아프리카 앞 농업분야, 중남미 앞 광업 및 관광분야, 아시아 앞 농업, 석유 및 가스 분야 등에 투자증가 예상

□ 유망 투자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

V. 시사점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업종 다변화 및 현지화 필요

- 우리나라는 제조업, 광업 등 특정업종에 투자가 집중되며, 현지유통망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므로 투자업종의 다변화 및 현지화 강화가 필요

□ 해외직접투자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동반 성장체제 구축

-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여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의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바, 동반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필요

□ 해외 M&A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의 '12년 국경간 M&A 투자비중은 25%로 전세계 M&A 비중인 33.5%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해외의 기술 및 영업력이 우수하며 저평가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M&A에 참여 필요

□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UNCTAD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리포트 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¹⁾」와 부속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2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7년의 정점 이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및 서브프라임사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여 '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08~'09년에 투자감소를 나타내었으나, '10년에 다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²⁾.
- 또한 본 보고서에 따르면, '00년 0.4%에 불과하던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이 '12년 2.4%로 성장하였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순위도 1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진입형태(그린필드 및 M&A)별 투자동향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함.
- 또한,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1) 세계투자리포트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주로 중앙은행이 담당)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보고서를 발표

2) 본 보고서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금액은 UNCTAD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를 반영한 금액임.

□ 본 보고서 및 분석자료 해석시 유의점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자, 유입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함.
- 「세계투자리포트 2013」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 대해 191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해서는 216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³⁾.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 수지 금액⁴⁾에 수익재투자⁵⁾를 반영한 금액이며,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의 합계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①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분석

1. 개황

- 2012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1조 3,910억 달러 기록⁶⁾
 - 금융위기 이후, '10년 및 '11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재정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12년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3)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UNCTAD	203	174	284	290	330
수출입은행	239	204	244	265	232

4) 해외직접투자 송금액 합계에 회수금액을 차감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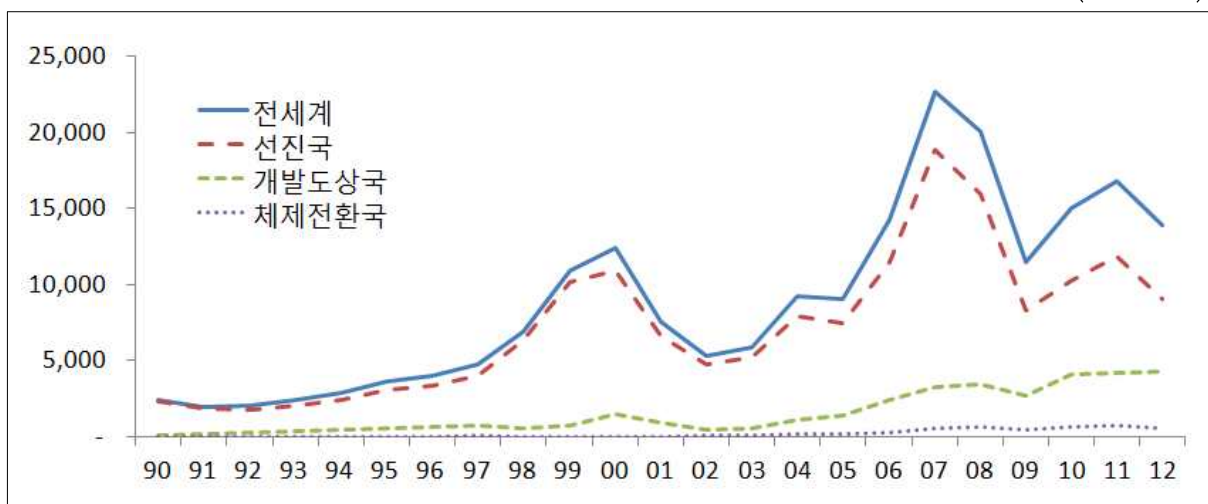
5) 수익재투자(reinvested earnings)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배당금)×투자자의 지분율

6) 전세계 개황 내용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자와 비교할수 있도록 유출액을 위주로 작성

- 이로인해 '12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핵심사업(Core Business)에 집중하며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등 자산구조조정, 투자회수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재조정한 것이 '12년 투자감소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유출은 전세계의 추세와 같이 '12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대비 23.1% 감소한 9,09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반면, 개발도상국은 금융위기였던 '08년에도 '07년보다 높은 수준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액을 시현하였고, '09년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0년 바로 회복세로 돌아서 '12년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이렇게 증가추세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때문이며, 특히 중국의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체제 전환국은 개발도상국과 유사하게 '08년에도 '07년보다 해외직접 투자금액이 증가하였고, '09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10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음. 그러나 '12년에는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음.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 달러)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선진국) '12년 전년대비 23.1% 감소한 9,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세계 유출액 감소를 주도

- 선진국의 유출액은 금융위기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11년말 부터 시작된 유로존 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여파 지속으로 다국적기업의 자산구조조정 및 투자회수가 이어져 '12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감소분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음.
- '10년~'11년 선진국의 투자회복세를 주도하던 미국은 '12년 유출액이 유럽발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3,28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럽의 유출액은 '12년에 전년대비 37% 감소하며 '07년의 29%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이 지역의 경제상황이 향후 다른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투자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유럽국가들 중 '12년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감소가 일어난 곳은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순이었으며, 투자철회 등으로 유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곳은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이었음.
- 한편, 선진국의 전반적인 투자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의 유출액은 '12년에 전년대비 각각 28%, 14% 증가하였고, 아일랜드는 전년의 마이너스에서 233억불 증가한 190억불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유출액의 70%가 수익재투자 부분이었음.

□ (개발도상국) 중국, 멕시코 등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 증가한 4,261억 달러 투자

- 세계적인 해외직접투자 침체경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멕시코, 칠레가 지속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12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1%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 전세계에서 개발도상국 유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달하였음.

7) 투자유출의 마이너스(-)는 해당연도에 투자유출액보다 투자회수가 더 많은 경우 발생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유출액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 증가에 따라 전년의 세배 수준인 14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 중남미⁸⁾ 지역의 유출액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082억 달러, 1,030억 달러 기록
- 한편, 개발도상국 유출액의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⁹⁾ 유출액으로, 이 중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 홍콩, 한국임. 이 세나라의 투자액이 아시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며, 개발도상국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이름.
- 중국의 유출액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된 '07년을 제외하고는 '03년부터 '08년까지 매년 두배 가까이 성장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 '12년 84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투자유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멕시코와 칠레는 풍부한 현금 및 포화된 내국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선진국 앞 M&A 유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럽 금융회사 앞 M&A가 많았음.

□ (체제전환국) 러시아의 유출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4% 감소

- 체제전환국의 유출액은 체제전환국 투자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4% 감소한 555억 달러 기록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억 달러)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전세계	22,720	20,053	11,498	15,049	16,780	13,910	-17.1%
선진국	18,904	16,007	8,280	10,298	11,831	9,094	-23.1%
유럽	13,295	10,436	4,298	5,980	6,092	3,85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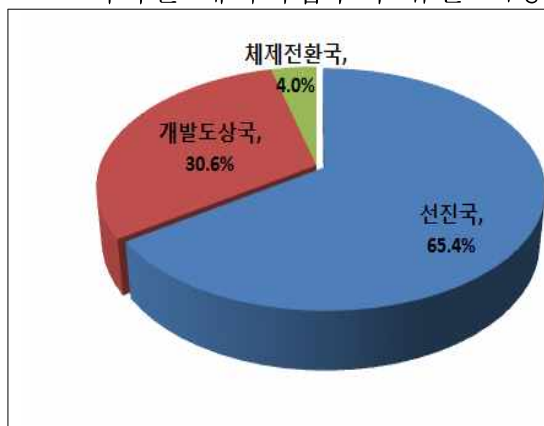
8) 본 보고서에서는 중남미에 카리브해 지역도 포함하여 언급

9) UNCTAD WIR에서 일본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아를 언급할때는 일본을 제외한 전체 아시아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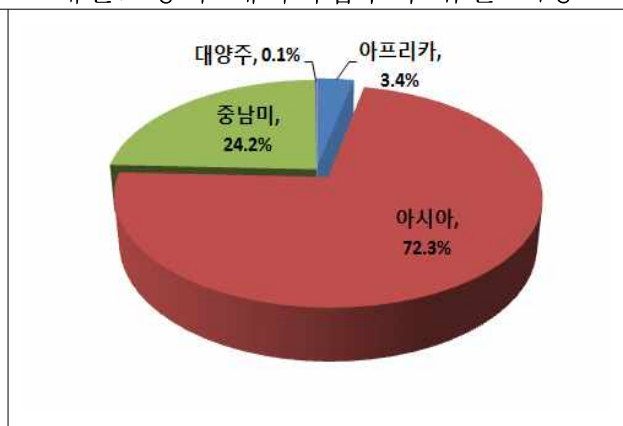
북미	4,581	3,876	3,066	3,391	4,465	3,828	-14.3%
기타	1,028	1,696	917	927	1,274	1,416	11.2%
개발도상국	3,300	3,440	2,734	4,132	4,221	4,261	1.0%
아프리카	111	101	63	93	54	143	165.9%
아시아	2,385	2,351	2,115	2,840	3,106	3,082	-0.8%
중남미	803	978	555	1,192	1,052	1,030	-2.0%
대양주	2	11	1	7	9	6	-37.1%
체제전환국	516	606	484	619	729	555	-23.9%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비중>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출 비중>



□ 최다 투자유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순¹⁰⁾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출액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영국 순으로 이들은 무역규모 또한 큰 나라들임¹¹⁾.

- 미국은 전년대비 유출액이 크게 줄었지만 타국가에 비해 유출액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바 전통적으로 유출액 규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은 '10년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지만 '12년 유출액이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11년의 2위 자리를 지킴.
-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03년 이후 계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 '12년에는 최초로 3위의 자리를 차지함. 한편, 우리나라도 꾸준히 투자규모를 늘려와 '12년 세계 13위를 기록.

10) <참고자료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투자액 및 순위 참고

11) 자료: WTO, '12년 무역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홍콩 순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선진국 유입액 감소분이 전세계 유입액 감소분의 86%를 차지

- 미국, 벨기에 등 선진국 국가들은 전세계 유입액 감소를 주도하며 전년대비 32% 감소한 5,60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선진국 유입액의 전세계 비중이 '11년의 50%에서 '12년에 42%로 하락
- 전통적으로 최다 투자유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08년에도 유입액이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전년대비 53%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 이후 미국의 유입액은 '10년부터 투자유입이 회복세로 전환된 후에도 '08년 정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채 '12년 유입액이 전년대비 26% 감소하였으며, 특히 미국 기업 앞 M&A 투자는 전년대비 780억 달러 감소함.
-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유럽은 '12년 유입액이 전년대비 42% 감소하며 '08년 유입액의 48% 수준인 2,75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럽 앞 유입액 감소분은 전세계 유입액 감소분의 66%에 달하였음. 이중 유입액 감소규모가 컸던 국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순임.
- 벨기에의 유입액 감소는 유럽내 다국적기업의 자금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독일 및 룩셈부르크의 벨기에 앞 투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 한편, 아일랜드는 긴축재정 중에도 경제회복세를 보이며 다국적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일랜드 앞 유입액이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영국으로의 유입액 또한 다국적기업 재투자수익이 증가¹²⁾함에 따라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유입액 감소세와 대조를 이룸.

□ (개발도상국) 최초로 전세계 유입액 대비 비중이 52%를 기록하며 선진국을 추월

-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인 바, '12년 전년대비 4% 감소

12) 자료: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 Foreign investment in UK rise despite slump across rest of Europe(2013.6.26)

(7,028억 달러)하는데 그쳤고, 유입액 비중도 처음으로 선진국을 앞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52%를 차지

- 지역별로 살펴보면, '12년 아시아로의 투자유입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4,068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이중 홍콩과 인도가 각각 전년대비 215억 달러(22.4%), 106억 달러(29.4%) 감소하여 감소폭이 컸으며 이 두 국가의 감소분이 아시아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특히 인도는 최근 낮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투자유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투자유입국인 중국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섬유·신발제조 등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메리트가 축소되며, 인근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로 투자처가 바뀌고 있음.
- 중남미의 투자유입은 전년대비 2% 감소한 2,4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카리브해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은 오히려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음. 칠레는 금·동 채굴업 등 자원목적의 투자유입이 늘어나 유입액이 전년대비 32.2%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세계 4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자동차관련 환경규제법 강화 및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중 강화에 따라 자동차부품 설비투자가 이어져¹³⁾ 전년대비 2.1% 감소하는데 그침.
- 반면, 멕시코가 전년대비 41% 감소한 127억불의 유입액을, 케이만군도가 전년대비 79% 감소한 42억불의 유입액을 시현하였음.
- 아프리카는 천연자원 탐사투자 및 중국으로부터의 높은 투자유입으로 인해 전년대비 5% 상승한 500억 달러 유입 기록

□ (체제전환국) 러시아, 벨라루스 앞 유입액 감소로 전년대비 9% 감소한 874억 달러 기록

- 체제전환국 유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앞 유입액이 전년대비 6.7% 감소하였고, 독립국가연합(CIS) 앞 유입액은 6.5% 감소하는데 그침.

13) 자료: KOTRA 시장정보 '브라질로 자동차 부품업체 투자가 몰린다'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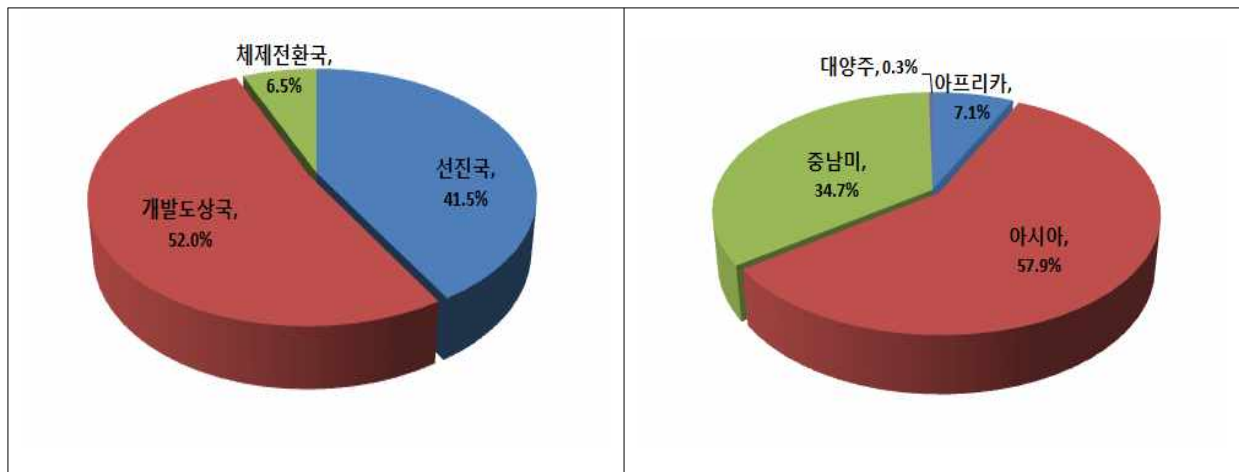
(억 달러)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전세계	20,027	18,164	12,165	14,085	16,515	13,509	-18.2%
선진국	13,199	10,265	6,134	6,964	8,200	5,607	-31.6%
유럽	9,065	5,718	4,048	4,292	4,729	2,756	-41.7%
북미	3,328	3,679	1,663	2,270	2,683	2,130	-20.6%
기타	806	868	423	402	788	721	-8.5%
개발도상국	5,894	6,684	5,303	6,371	7,352	7,028	-4.4%
아프리카	513	589	530	436	476	500	5.1%
아시아	3,649	3,962	3,247	4,007	4,362	4,068	-6.7%
중남미	1,719	2,107	1,502	1,899	2,494	2,439	-2.2%
대양주	13	27	25	29	20	22	6.0%
체제전환국	934	1,214	727	751	963	874	-9.3%

'12년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 비중>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입 비중>



□ 최다 투자유입국은 미국, 중국, 홍콩, 브라질 순¹⁴⁾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입액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 중국, 홍콩, 브라질, 영국령 버진군도 순이며, 이중 미국, 중국, 홍콩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5위국 안에 포함

14)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투자액 및 순위 참고

-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투자유입이 이어져 전통적으로 1~2위를 차지하는 최다 투자유입국이며, 홍콩은 중국 시장 진입의 교두보 및 금융허브로서의 투자가 이어져 오랜기간 3~4위 투자유입국이 되어왔음.
- 한편 브라질은 최근 급속도로 투자유입국의 상위권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정책 변화로 자동차부품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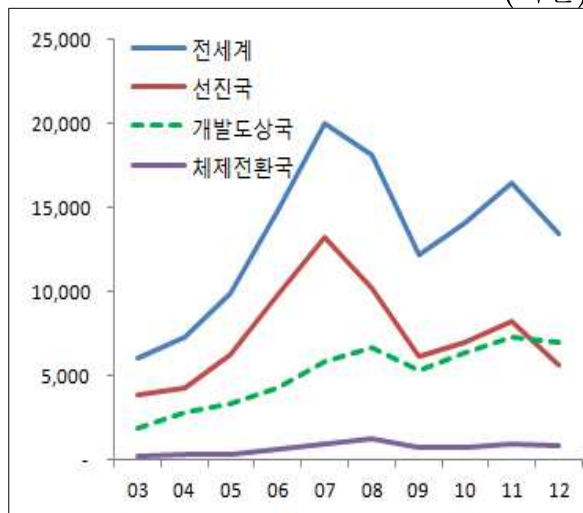
◆ 성장하는 아프리카 앞 해외직접투자 유입 ◆

□ '12년 전세계적 해외직접투자 유입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앞 유입액 최근 2년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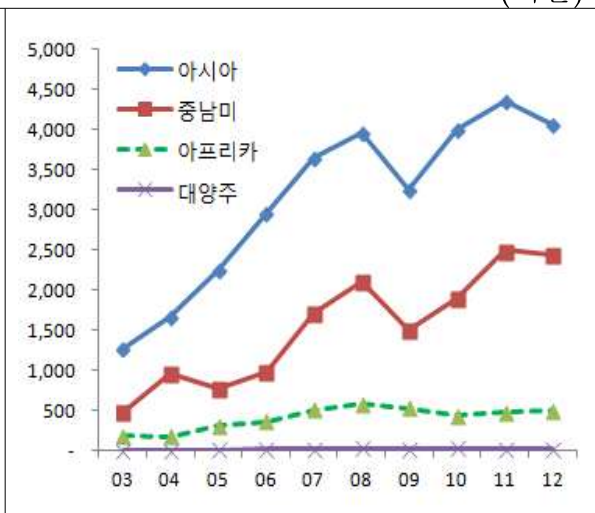
- '12년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모두 투자유입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개발도상국 중 아시아와 중남미 또한 감소추세로 전환한 반면 아프리카는 '10년 이후 투자유입이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10년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이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이>
(억불)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이>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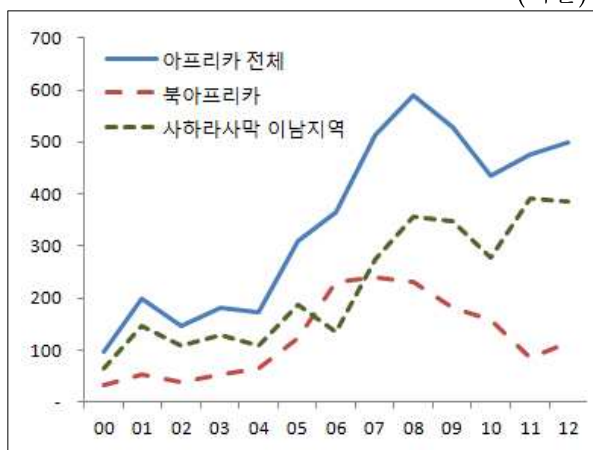
□ '12년 아프리카 유입액(500억 달러)는 '02년(146억 달러)의 3.4배 수준¹⁵⁾

- '12년 아프리카 유입액은 10년전인 '02년 유입액보다 3.4배 성장하였으며, '00년(96억 달러)에 비해 5.2배 증가한 것임.

- 또한,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12년 유입액(385억 달러)은 '02년 유입액(107억 달러)보다 3.6배, '00년 유입액(64억 달러)보다 6배 성장함.
- 특히, 아프리카 중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은 2000년대 들어 내전이 급감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잠재력이 부각되어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5~6%대 경제성장율을 시현하는 등 구매력이 증대되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국은 아프리카 앞 사회기반시설 건설, 농업 및 제조업 발전을 위해 20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12년, 제5차 중·아 협력포럼 장관급회의)한 바 있고, 미국은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전력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Power Africa' 계획을 발표('13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앞 투자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⁶⁾.
-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앞 투자는 '08년 이후 3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3.6)하는 등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유입 현황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이¹⁷⁾>
(억불)



<아프리카 유입액 상위 10개국 현황>
(억불)

	2010	2011	2012
나이지리아	61	89	70
모잠비크	10	27	52
남아프리카공화국	12	60	46
콩고민주공화국	29	17	33
가나	25	32	33
모로코	16	26	28
이집트	64	(5)	28
콩고	22	31	28
수단	21	27	25
적도기니	27	20	21

15) 자료: UNCTAD,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35호) '아프리카의 FDI 확대배경 및 시사점'

16) 자료: 연합뉴스 '12.7.21자 '중-아프리카 50개국 베이징선언 채택', 연합뉴스 '13.6.30자 '오바마 아프리카 전력개발에 70억불 투자'

17) UNCTAD 국가분류기준에 따라, '북아프리카'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로 구성되며,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 포함됨.

②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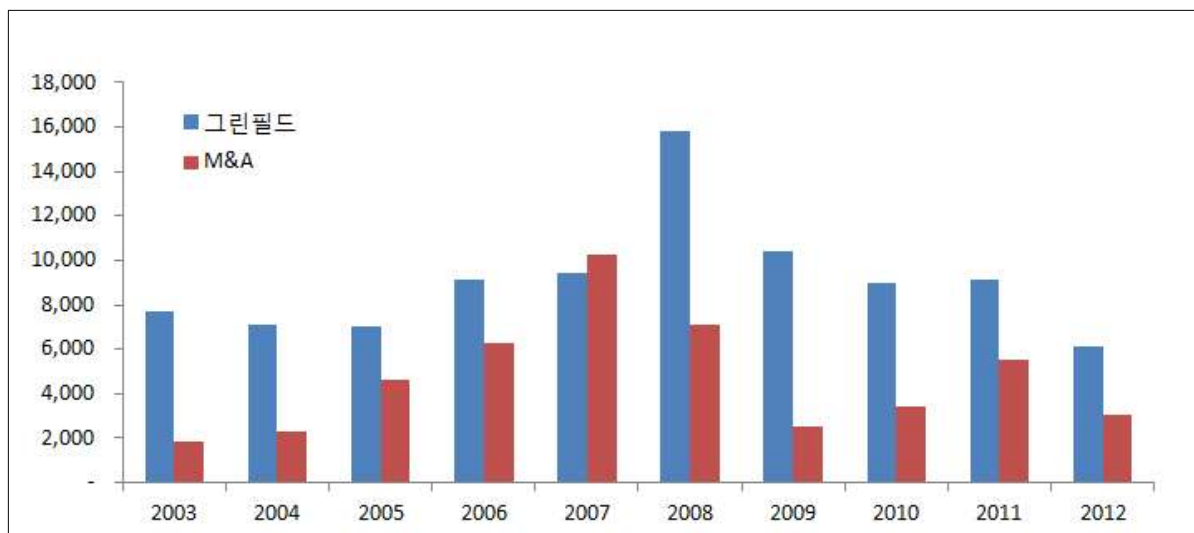
1. 진입방식별 투자 개황¹⁸⁾

□ 경기침체로 그린필드 및 국경간 M&A¹⁹⁾ 모두 투자감소

- '12년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및 신흥개발국의 성장둔화로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되었으며, 기업들이 성장과 확장보다는 내실강화 및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6,122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M&A는 45% 감소한 3,081억 달러를 기록하며 '09~'10년 수준으로 되돌아감.
- '12년에는 그린필드형 투자보다 M&A 투자가 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규모의 M&A보다는 소규모의 M&A가 더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린필드와 M&A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 달러)



18) UNCTAD WIR 2013는 업종별 데이터 부재로, M&A 자료는 UNCTAD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그린필드 자료는 Financial Times fDi Marktes(www.fDimarkets.com)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19) 각국내 M&A를 제외한 국경간 M&A가 해외직접투자가 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하 M&A로 표시

2. 진입방식별·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 (그린필드 유출) '12년 선진국 그린필드 유출액 전년대비 37.2% 감소

- '12년 선진국 그린필드 유출액이 전체 그린필드 유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압도적인 가운데 유출액 감소 규모 또한 전년대비 37.2% 감소하는 등 가장 컸음. 개발도상국의 그린필드 유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나, 개발도상국 중 아시아의 그린필드 유출액은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발도상국의 그린필드 유출액은 아시아의 비중이 92%로 압도적인 가운데, 아시아에서 그린필드 유출액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순이며, 중국과 인도는 각각 전년대비 53%, 28%의 유출액 감소가 있었음.
- '12년 그린필드 유출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유출액이 전년대비 86% 증가

□ (M&A 유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발 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45% 감소

- 선진국 M&A 유출액은 금융위기 후 '09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고, '10년~'11년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12년 전년대비 59%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 M&A 유출액은 '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개발도상국 중 비중이 가장 큰 아시아는 전년대비 6% 감소하였으나 중남미는 전년대비 74%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이 전년대비 2% 증가한 371억 달러를 투자하며 M&A 투자에 있어 세계 3위의 위치를 차지함. 중남미는 브라질과 칠레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M&A 투자가 전년대비 74% 증가함.

진입방식별·지역별 투자유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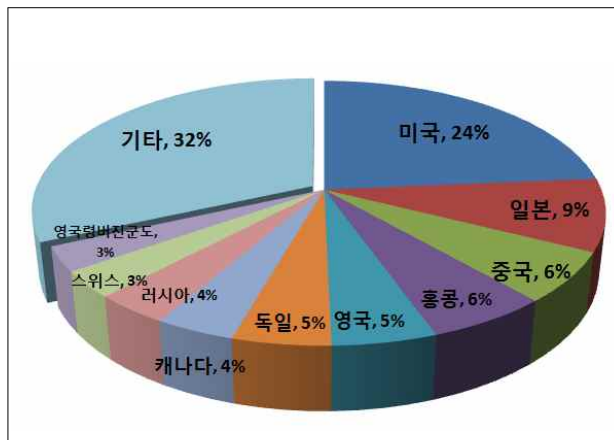
(억 달러)

	그린필드				M&A			
	2010	2011	2012	전년대비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전세계	9,012	9,138	6,122	-33.0%	3,440	5,552	3,081	-44.5%
선진국	6,414	6,434	4,043	-37.2%	2,237	4,281	1,756	-59.0%
유럽	3,873	3,619	2,243	-38.0%	419	1,684	249	-85.2%
북미	1,666	1,853	1,217	-34.3%	1,181	1,747	1,194	-31.7%
기타	875	961	583	-39.4%	636	850	313	-63.2%
개발도상국	2,382	2,525	1,978	-21.7%	981	1,083	1,131	4.4%
아프리카	167	354	74	-79.0%	33	44	6	-86.0%
아시아	1,997	1,959	1,813	-7.5%	790	852	798	-6.4%
중남미	217	208	91	-56.3%	158	187	326	74.1%
대양주	0	4	-	-100.0%	(0)	(0)	0	-143.6%
체제전환국	216	180	100	-44.2%	57	117	87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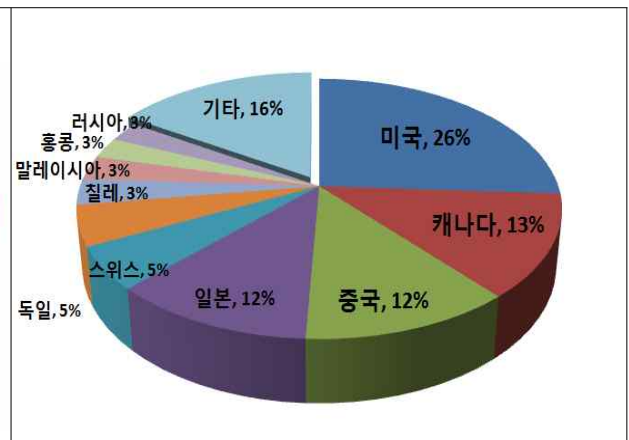
-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출보다 M&A 투자유출이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12년에 전체 해외직접투자유출에 있어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인데 반해, M&A 투자에 있어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특정국가 투자집중도가 높음. 특히 캐나다, 중국, 일본에서 그린필드 투자보다 M&A 투자가 더 적극적이었음.

전체 및 M&A 상위 10개국 투자유출 비교

<전체 상위 10개 투자유출국 비중>



<M&A 상위 10개 투자유출국 비중>



□ (그린필드 유입) 전체 그린필드 유입액 중 개발도상국 유입액 비중이 56.5%

-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모두 그린필드 유입액이 '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2년에 개발도상국 앞 그린필드 유입액이 전년대비 38.2% 감소하여 지역 중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체 그린필드 유입액 중 개발도상국 유입액 비중은 56.5%로 가장 높았음.
- '12년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 앞 그린필드 유입액이 감소한 반면, 영국 앞 그린필드 유입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타 선진국 국가와 대조를 이룸.
- 개발도상국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의 유입액이 전년대비 31% 감소하였고, 이중 그린필드 최대유입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전년대비 각각 27%, 37%, 31% 감소하였음. 인도와 베트남의 그린필드 유입액은 '08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 인도는 낮은 성장률과 인플레이가, 베트남은 인플레이와 은행부실 문제가 투자감소의 원인으로 보임.
- 한편, 미얀마는 유입액 규모가 작지만, '09년 이후 꾸준히 투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그린필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M&A 유입)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44.5% 감소

- 그린필드 유입국이 주로 개발도상국인 것과는 달리 M&A 유입국은 주로 선진국임. 유럽 M&A 유입액은 '12년 전년대비 35.4% 감소하였지만 유럽의 금융기관 등 자산매각이 많아 유럽 M&A 유입액의 전세계 대비 비중이 45%에 달하였음.
- 개발도상국 M&A 유입액은 아프리카, 아시아, 대양주가 전년대비 각각 113.9%, 50.7%, 165.8% 감소한 가운데 중남미만 전년대비 4.8% 증가

진입방식별·지역별 투자유입 동향

(억 달러)

	그린필드				M&A			
	2010	2011	2012	전년대비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전세계	9,012	9,138	6,122	-33.0%	3,440	5,552	3,081	-44.5%
선진국	3,011	2,946	2,255	-23.4%	2,572	4,338	2,603	-40.0%
유럽	1,695	1,735	1,296	-25.3%	1,250	2,134	1,379	-35.4%
북미	821	1,000	712	-28.8%	979	1,765	954	-45.9%
기타	495	211	247	17.4%	343	439	269	-38.6%

개발도상국	5,443	5,597	3,461	-38.2%	824	885	493	-44.3%
아프리카	889	829	470	-43.4%	81	86	(12)	-113.9%
아시아	3,329	3,350	2,321	-30.7%	369	598	295	-50.7%
중남미	1,201	1,385	657	-52.6%	284	201	211	4.8%
대양주	23	33	13	-61.5%	90	0	(0)	-165.8%
체제전환국	558	595	405	-31.9%	45	328	(16)	-104.8%

3. 진입방식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²⁰⁾

□ (그린필드 업종별) 1차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유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유출액이 특히 감소

- 그린필드 투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12년에는 제조업 유출액이 전년대비 41.7%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52.8%를 기록, 제조업보다 높은 유출액 시현
- 그린필드 1차 산업 유출액은 광업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66.9%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불확실성 증대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산업으로, 최근 수년간 해외직접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사업서비스, 무역, 금융 등의 전략서비스 분야가 투자 축소 폭이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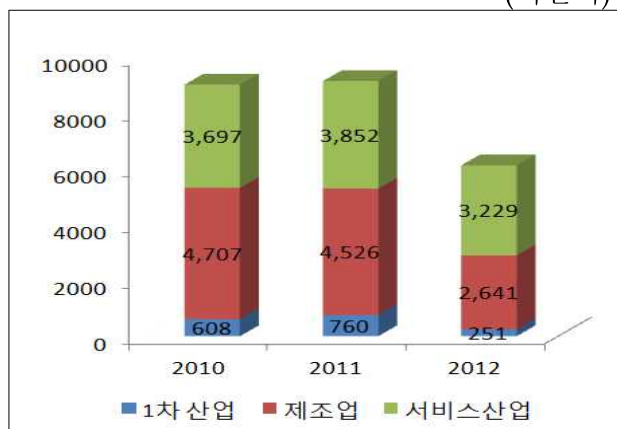
□ (M&A 업종별) 1차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경기침체로 타격

- '12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M&A가 전년대비 38.6% 감소한 반면, 제조업 M&A 비중이 '11년 41%에서 '12년 47%로 상승

진입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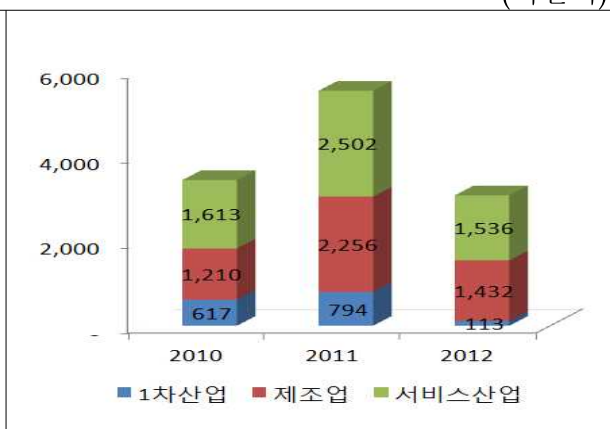
<그린필드 업종별 유출 추이>

(억달러)



<M&A 업종별 유출 추이>

(억달러)



20)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출만 분석

I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2012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330억 달러 기록²¹⁾
- '12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고, 전 세계 유출액 대비 우리나라 유출액 비중은 1.7%에서 2.4%로 상승하였으며, 유출액 국가 순위는 '11년 16위에서 '12년 13위로 3단계 상승하며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액	216	203	174	284	290	330
증가율	72.7%	-6.1%	-14.3%	63.0%	2.3%	13.7%
세계비중	1.0%	1.0%	1.5%	1.9%	1.7%	2.4%
개발도상국 비중	6.5%	5.9%	6.4%	6.9%	6.9%	7.7%
세계 순위	20	22	18	16	16	13

- 우리나라의 '12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99억 달러 기록
- 유입 국가 순위는 31위로 전년보다 5단계 상승, 전세계 비중은 0.7%, 개발도상국 비중은 1.4%를 차지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최근 5년간 100억 달러 규모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국내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로도 큰폭의 유입액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21) 'IV.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금액은 UNCTAD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를 반영한 금액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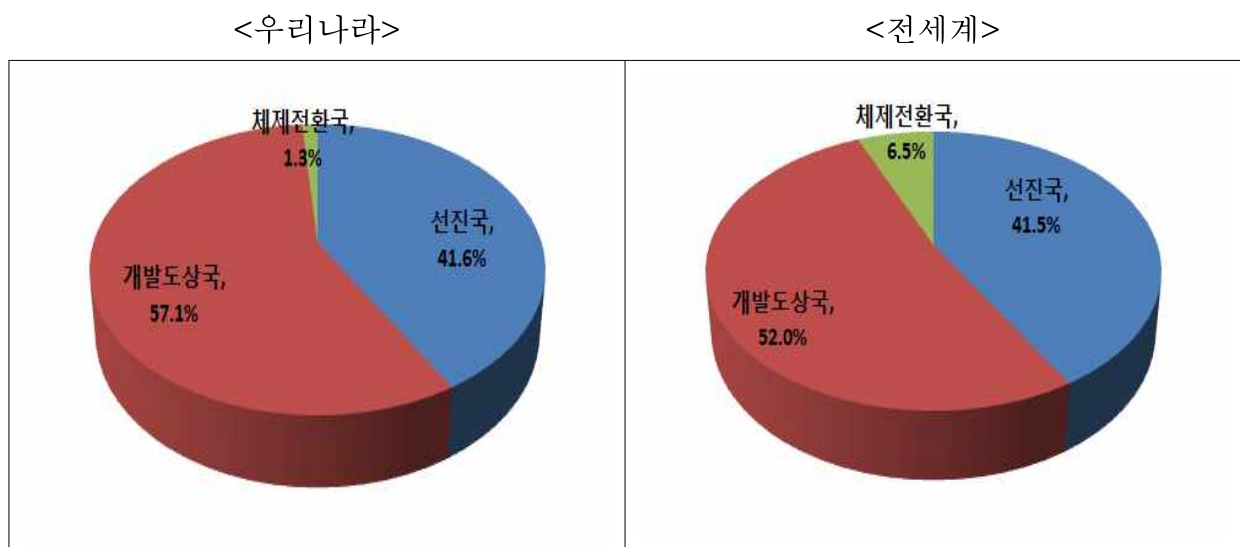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입액	90	112	90	101	102	99
증가율	-1.0%	24.9%	-20.0%	12.8%	1.3%	-3.3%
세계비중	0.4%	0.6%	0.7%	0.7%	0.6%	0.7%
개발도상국 비중	1.5%	1.7%	1.7%	1.6%	1.4%	1.4%
세계순위	40	28	31	27	36	31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앞 투자 비중이 전세계 대비 5%p 높음²²⁾

- 우리나라의 '12년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비중은 선진국 41.6%, 개발도상국 57.1%, 체제전환국 1.3%로, 전세계와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 앞 투자비중이 5.1%p 높고, 체제전환국 비중이 5.2%p 낮았음.

우리나라와 전세계 지역별 투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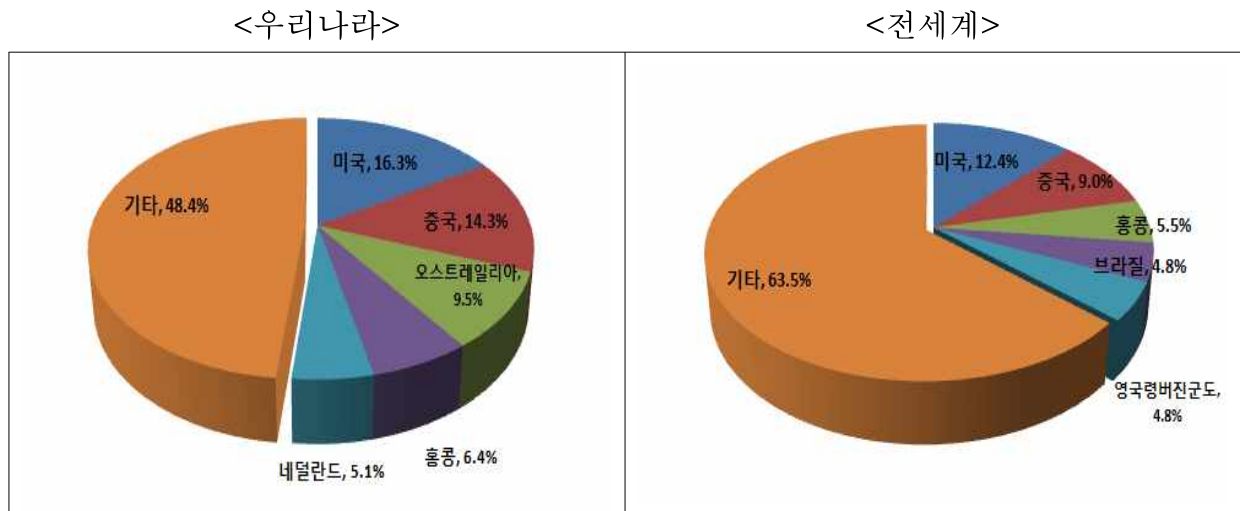


- '12년말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이며, '12년의 최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홍콩으로, 호주 앞 투자 유출액은 광업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61.7% 증가하였고, 네덜란드는 지주회사 설립 투자가 늘어 전년대비 56.2% 증가함.

²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지역별, 업종별로 전세계와 비교할 때 유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특정국가 집중도가 높아, '12년도 투자대상 상위 5개국 앞 투자비중이 51.6%에 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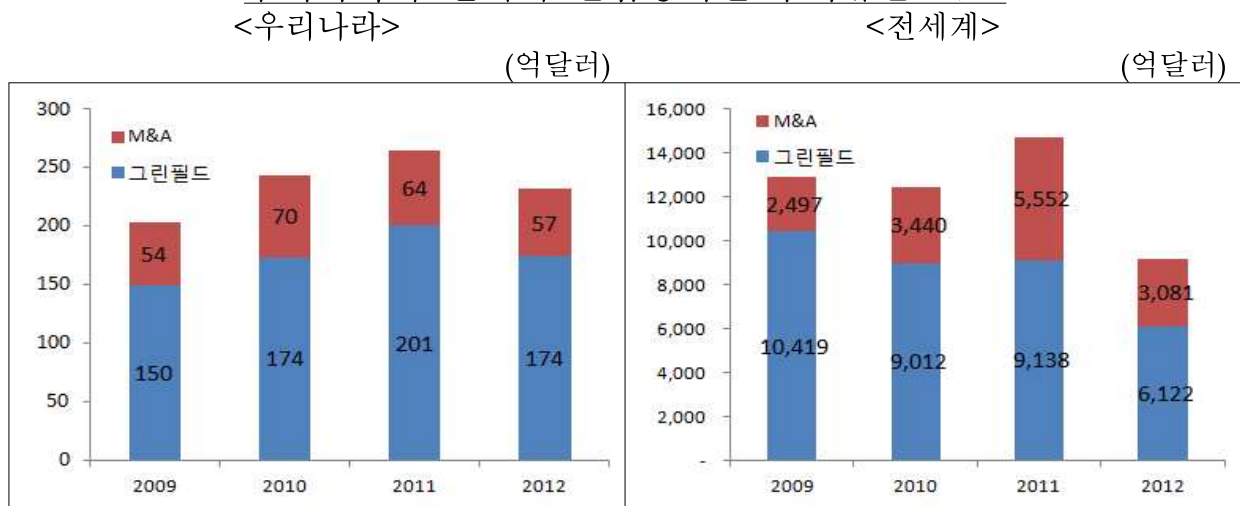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전세계 상위 5개 투자대상국 투자비중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75%²³⁾

- 우리나라의 '12년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해외직접투자가 75%를 차지하여 전세계(67%) 대비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높으며, 업종별로 분석시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전세계 대비 1차 산업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임.

우리나라와 전세계 진입방식별 투자유출 비교



2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진입방식별, 업종별, 국가별 투자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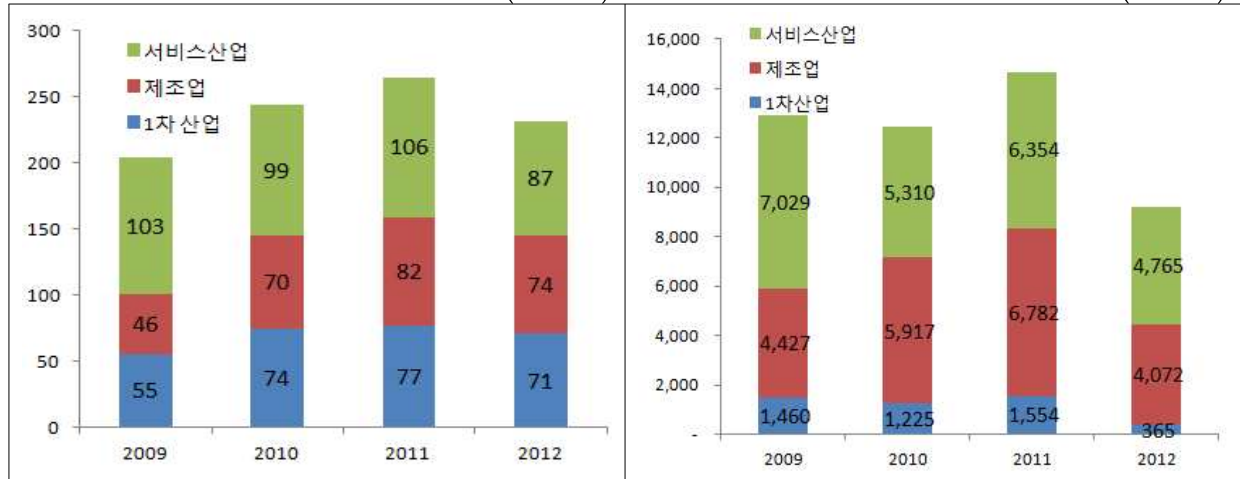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전세계 업종별 투자유출 비교

<우리나라>

<전세계24>

(억달러)

(억달러)



- 우리나라의 '12년 그린필드 투자유출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37.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조업 및 1차산업에의 투자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M&A 투자는 제조업 유출액이 점차 증가해 '12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43%에 달함. 한편, '1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M&A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2년에는 1차산업 M&A가 전년대비 43.1% 감소

우리나라 진입방식별·업종별 투자유출 동향

(백만 달러)

	그린필드				M&A			
	2010	2011	2012	전년대비	2010	2011	2012	전년대비
1차 산업	3,516	5,587	5,907	5.7%	3,931	2,134	1,215	-43.1%
제조업	5,495	6,263	4,912	-21.6%	1,531	1,921	2,472	28.7%
서비스산업	8,380	8,206	6,612	-19.4%	1,514	2,379	2,046	-14.0%
합계	17,391	20,057	17,431	-13.1%	6,976	6,434	5,733	-10.9%

24) UNCTAD 세계투자리포트 2013은 업종별 데이터 부재로 M&A 자료는 UNCTAD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그린필드 자료는 Financial Times fDi Markets(www.fdimarkets.com)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M&A 투자(유출)의 경우 1차산업에 4%, 제조업에 46%, 서비스업에 50%를 투자하였고, 그린필드는 1차산업에 4%, 제조업에 43%, 서비스업에 53%를 투자하였음.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²⁵⁾

□ 2015년까지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완만히 증가할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3」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1.45조 달러, 2014년 1.6조 달러, 2015년 1.8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기적으로 생산, 투자, 무역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신규투자자로 전환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업들이 예상함에 따라 향후 3년간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BRICs 국가들의 경제상황 호전이 해외직접투자금액 증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거시경제적 환경 악화 가능성, 각국별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가 존재
- 특히, 유럽국가들의 경제상황이 해외직접투자에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긴축정책, 무역보호주의 등도 위험요소 중 하나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억 달러)



25) 「세계투자리포트 2013」에서는 「UNCTAD's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3-2015」에 기초하여 해외직접투자전망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전망 부분도 「세계투자리포트 2013」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업종별로 선진국은 사업서비스 분야, 개발도상국은 농업,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의 투자 증가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3」에서는 선진국 앞 투자로는 컨설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사업서비스 분야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함.
- 개발도상국 앞 투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앞 농업분야, 중남미 앞 광업 및 관광 분야, 아시아 앞 농업, 석유 및 가스, 식료품, 건설 및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체제전환국 앞 투자는 기계산업 및 직물공업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중기적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유망 투자유출국으로 예상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최근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의 60%가 중국을 가장 유망한 투자유출국으로 선정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그간의 주요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여전히 유망 투자유출국으로 꼽혔으며, 한국도 유망 투자유출국 9위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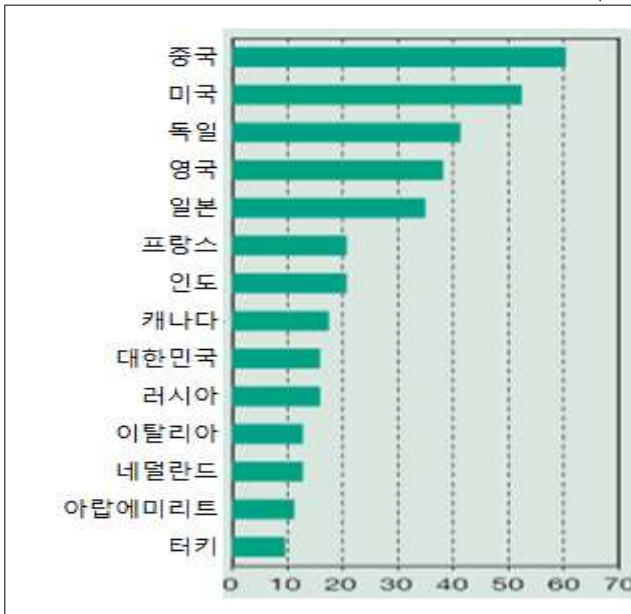
□ 중기적으로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유망 투자유입국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유입액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지는 중국이 확고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10개국 중 6개가 개발도상국이며, 멕시코와 태국은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등장
- 일본은 '11년 지진해일 재건 노력과 최근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입지가 상승, 전년 13위에서 올해 10위로 순위 상승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전망26)

<'13년~'15년 유망 투자유출국>

(%)



<'13년~'15년 유망 투자유입국>

(%)



V

시사점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업종 다변화 및 현지화 필요

- 선진국들은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길고 현지법인의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상태
- 우리나라는 제조업, 광업 등 특정 업종에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므로 투자업종의 다변화 및 현지화 강화가 필요함
- 즉, 생산뿐만 아니라 R&D, 현지 유통망,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전반을 현지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26) 동 전망은 UNCTAD가 64개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159개 기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국에 대해 유망 투자유출국(또는 유망 투자유입국)으로 선정한 응답비율을 %로 표시한 것

□ 해외직접투자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동반 성장 체제 구축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촉진·저임활용에서 벗어나 현지시장진출을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의 현지화 및 독립 경영추세가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 수준의 지원에 머물기 보다는 현지 중심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국내 본사보다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매출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 등 현지시장을 목표로 한 해외직접투자의 현지화가 가속되고 있는 바, 우량한 현지법인 앞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
- 또한, 우리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여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동반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 해외 M&A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의 '12년 국경간 M&A 투자비중은 25%로 전세계 M&A 비중인 33.5%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가별로 비교할 때에도 중국(66.1%), 일본(45.5%), 미국(43.7%) 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M&A는 유출액 규모면에서도 55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371억 달러)과 일본(357억 달러)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브라질(74억 달러), 멕시코(5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현재 전세계의 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각국마다 저평가된 사기업과 국영기업 매물이 있을수 있으므로 기술 및 영업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에 적극적 참여 필요

<참고자료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1		2010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국	328,869	1	396,656	1	304,399	1
일본	122,551	2	107,601	2	56,263	9
중국	84,220	3	74,654	6	68,811	5
홍콩	83,985	4	95,885	4	98,414	3
영국	71,415	5	106,673	3	39,502	12
독일	66,926	6	52,168	11	121,525	2
캐나다	53,939	7	49,849	12	34,723	14
러시아	51,058	8	66,851	7	52,616	10
스위스	44,313	9	47,316	13	79,290	4
영국령버진군도	42,394	10	52,233	10	58,717	8
프랑스	37,197	11	59,553	8	64,575	7
스웨덴	33,428	12	28,158	17	20,178	22
대한민국	32,978	13	28,999	16	28,357	16
이탈리아	30,397	14	53,629	9	32,655	15
멕시코	25,597	15	12,139	28	15,045	24
싱가포르	23,080	16	26,249	18	25,341	18
칠레	21,090	17	20,373	21	9,461	31
노르웨이	20,847	18	25,362	19	23,274	19
아일랜드	18,966	19	(4,290)	191	22,348	20
룩셈부르크	17,273	20	9,169	30	21,435	21
말레이시아	17,115	21	15,249	22	13,399	26
오스트리아	16,648	22	24,782	20	9,994	30
호주	16,141	23	14,285	24	27,271	17
벨기에	14,668	24	82,492	5	43,894	11
대만	13,031	25	12,766	26	11,574	28
태국	11,911	26	8,217	33	4,467	36
헝가리	10,578	27	4,693	38	1,135	50
케이만군도	9,938	28	9,436	29	13,857	25
인도	8,583	29	12,456	27	15,933	23
덴마크	7,596	30	13,299	25	(107)	186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1		2010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국	167,620	1	226,937	1	197,905	1
중국	121,080	2	123,985	2	114,734	2
홍콩	74,584	3	96,125	4	82,708	4
브라질	65,272	4	66,660	5	48,506	9
영국령버진군도	64,896	5	62,725	7	49,058	8
영국	62,351	6	51,137	10	50,604	7
호주	56,959	7	65,297	6	35,242	13
싱가포르	56,651	8	55,923	8	53,623	6
러시아	51,416	9	55,084	9	43,168	10
캐나다	45,375	10	41,386	12	29,086	18
칠레	30,323	11	22,931	17	15,373	23
아일랜드	29,318	12	11,467	32	42,804	11
룩셈부르크	27,878	13	22,166	18	34,753	14
스페인	27,750	14	26,816	16	39,873	12
인도	25,543	15	36,190	14	21,125	20
프랑스	25,093	16	38,547	13	33,627	15
인도네시아	19,853	17	19,241	21	13,771	25
콜롬비아	15,823	18	13,438	28	6,758	36
카자흐스탄	14,022	19	13,903	27	11,551	26
스웨덴	13,711	20	9,246	38	(64)	211
헝가리	13,469	21	5,757	46	2,163	58
노르웨이	12,775	22	18,205	23	16,824	21
멕시코	12,659	23	21,504	19	21,372	19
아르헨티나	12,551	24	9,882	37	7,848	34
터키	12,419	25	16,047	26	9,036	31
페루	12,240	26	8,233	40	8,455	32
사우디아라비아	12,182	27	16,308	25	29,233	17
체코	10,592	28	2,318	65	6,141	39
이스라엘	10,414	29	11,081	35	5,510	41
말레이시아	10,074	30	12,198	30	9,060	30
대한민국	9,904	31	10,247	36	10,110	27